



남원농협, 고품질 벼 안정생산단지 현장 평가회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달 29일 신동면 목동리에 조성한 시범포에서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단지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남원농협은 지역 생산 쌀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해답 벼의 질소시비량을 관행 (11kg/10a)에서 7kg/10a와 9kg/10a로 줄인 시범단지 포장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질소 시비량을 절감해도 수량성과 품질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소개됐다.

남원농협 이정숙 본부장은 "과거 시비를 줄이고, 적정 시비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소비자에게 더 좋은 품질의 쌀을 공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교장 임명장 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일 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9월 1일자 군산부설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명은 인사발령에 따라 그간 교육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기획 등을 관장하던 서선영 군산부설초등학교 교장(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이 앞으로 초등교육 최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박병춘 총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활학가족이 된 서선영 교장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초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부설초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금구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금구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과 더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과 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마음치료 북큐레이션, △SNS 홍보 이벤트, △과월호 정기행사를 증정, △그림책 체험놀이, △인형극 공연, △웹툰 작가와의 만남, △시니어 인지발달 책놀이 등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gjg.gim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540-4162)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명창 '진채선' 재조명

고창 심원면 사동마을서… 제5회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명창인 진채선을 추모하고 재조명하는 기념행사가 1일 오전 고창군 심원면 사동마을에서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진채선의 날 행사는 진채선기념사업회(회장 라남근)와 진채선선양회(회장 최혜진)가 공동주관했다.

진채선 선양에 공이 큰 채수정 진채선선양회 부회장, 박종선 진채선 기념사업회 부회장, 권민정

진채선선양회 명예회장, 김한옥 사동마을 이장, 유혜은 비조채선 대표, 김유진 진채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진채선상'이 새롭게 제정됐다. 올해의 첫 수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모보경 명창이 수상했다.

추모공연은 비조채선의 판소리 창작곡과, 채수정 명창의 흥보가 즐 음식차리는 대목, 진채선상을 수상한 모보경 명창의 전통 판소리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1847년 고창에서 태어난 진채선은 17살 때 판소리 6부



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년)의 발탁으로 소리를 시작해 조선 최초 여성 명창이 됐다.

고종 1867년 경희루 낙성연에서 흥선대원군의 초청으로 성조가와 방아타령을 불러 청중을 놀라게 했고 남성 못지않게 성음이 웅장하고 기량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창극사'에서는 진채선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으며 정기는 '춘향가'와 '심청가'였고 특히 '춘향가' 중 '기생점과 대복'을 잘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개강 맞아 간식 나누며 등교 학생 환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 1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환영행사를 가졌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자, 그리고 학생자치위원회 임원들은 정문과 서문, 북문, 동문 등에서 3,000명 분의 샌드위치와 커피를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2학기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며 "우리 대학이 학생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뿐 아니라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개강맞이 '웰컴떡' 나눔 행사 가져

국립군산대학교는 1일, 2025학년도 개강을 맞아 특별한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국립군산대 황룡도서관 앞 광장에서 엄기우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 학생들 천 여명에게 '웰컴떡'을 나누며 따뜻한 새 학기 인사를 건넸다.

이른 시간에도 캠퍼스를 가득 채운 학생들은 학교의 세심한 배려에 반기움을 드러냈다.

특히 국립군산대는 올해 학생 복지와 편의 증진에 집중하며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군산대 엄기우 총장 직무대리는 "밝은 얼굴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니 캠퍼스가 한층 활기를 띠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복지와 편의 증진은 물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이복산장학회, 하반기 2140만원 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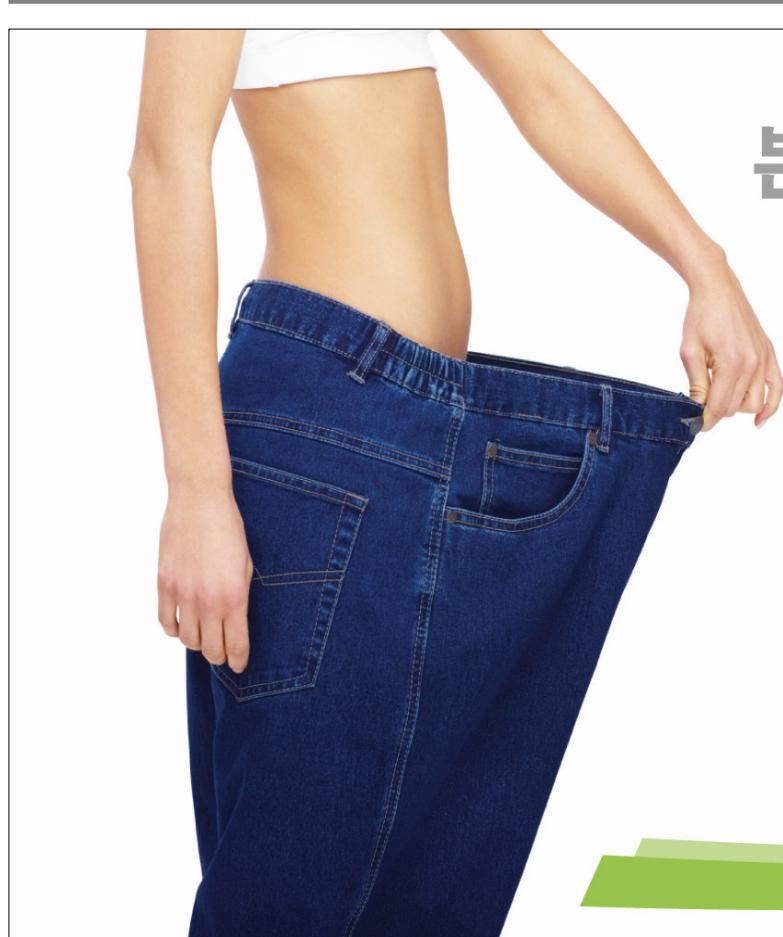
이복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하반기 장학금으로 2,140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이중중학교 2학년 김채은 외 15명(연 50만 원), 전라고등학교 1학년 김윤 외 25명(연 150만 원) 등 총 33개교 42명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2007년 창립 이래 모두 1,294명에게 8억여 원을 수여했다.

올해 청립 18주년으로 장학생 196명을 배출했으며, 대학생 회원에는 연수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7명에게 지원했다. 또한 지난 7월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고창 선운사유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50명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응집력을 극대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